

시론



조영서 주월초등학교 교사

글쓰기의 어려움

줄 수 있을지,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든다.

이제는 필자뿐만 아니라, 성인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글쓰기가 어려운 지경을 넘어 두려움까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로 하여금 육하 원칙과 서론-본문-결론을 갖춘, 그럴 듯한 형식을 가진 글을 쓰는 것만이 글쓰기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소재와 방식을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소재와 방식을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경험한 일을 학급 소통망 등에 사진과 그에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글쓰기를 써내려 간다면 과정도 결과물도 훨씬 풍성한 글쓰기가 될 것이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 쓴 글에 대해선 되도록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앞서 글쓰기의 본질은 의사소통임을 강조한 바 있다. 글을 썼다면, 내가 의도한대로 상대방이 읽고 이해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글 쓰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그러나 너무 잘 쓰려 하지 말고 그냥 써보라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것만이 글은 아니다. 쓰고 또 쓰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보는 것도 다 글이고, 글쓰기다.

얼마 전 마음을 울컥하게 한 글을 읽었다. 수학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가 서울대 졸업식에서 한 축사였다. 시인을 꿈꾸며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수학의 매력에 빠져 수학자의 길을 가게 된 그의 독특한 인생 여정이 담긴 글이었다.

이렇듯 좋은 글은 개인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사회와 역사를 바꾼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기록을 통해 발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점판에 기록했다.

그러나 필자가 쓴 글을 돌아보니, 갈 길이 멀을 느낀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기고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시급

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첫째, 진상 규명의 범위 확대와 깊이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식 명칭에서 명시돼 있던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

둘째, 교육과 기념사업의 강화이다. 여순사건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 수립 초기에 ‘반공’만을 외치던 이념 교육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셋째, 진상 규명 조사 과정의 신뢰성 확보이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거나 훼손됐다.

1960-1970년대 연좌제의 피해에서 벗어나고 자 희생자·유족들이 사진, 일기장, 철도원 복장, 메모장 등 모든 증거를 잃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대다수 자료는 군대, 경찰서 등 진압 군 경의 자료들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와 치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연장은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다. 조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진상 규명과 역사적 자료 확보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후세대에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조사 기한 연장을 통해 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21대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나무’를 심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여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수분도 공급하고 제초도 해주어야 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순·순천 등 전남·전북·경남 일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비극적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후 많은 이들이 이익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21년 ‘여순·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히 현재 조사 기한인 2024년 10월 5일이 곧 도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엔 시급한 당면 과제다. 이번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자 국회의원, 유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를 설치하기로 했다.

독자투고



화재 등 모든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틈을 타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때때 따라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있으므로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생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사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안전조치 소홀, 질식사 위험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따른 인식 부족, 반복적인 작업에 따른 안전작업수칙 무시 등이다.

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자.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밀폐공간 등 각종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유념해야 한다.

社說

주민과 소통 부족 광주 남구의회 반성하고 혁신해야

광주 남구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데 공을 들이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팔짱을 끼고 있다.

반면 2022년 11월 가장 먼저 라이브 송출을 시작한 북구의회는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 33건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지난해는 162건, 올해 현재는 73건이다.

남구의회의 지나친 무성의에 주민들은 해도 너무하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SNS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고 일반인에 익숙하며 1인 방송 시대가 열렸으나 시대적 흐름을 외면, 의지가 없다고 꼬집는다.

설, 업로드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일시적 모면만을 위한 해명으로 밖엔 들리지 않는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다. 의원들이 자신의 활동을 알릴 매체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방법이 쉬운데도 지극히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도 ‘검투싸움’으로 파행이 거듭된 바 있고, 이로 인해 여름 휴가철과 겹치는 이달 말에 집행부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일정으로 반발을 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대로라면 주민과 신뢰마저 끝내 무너지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동반성장 광주시 지원 의지 중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30번째 월요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청년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실질 해법을 모색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청년 고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광주·전남의 사정은 다른 양상이다. 고용·실업률 지표도 외형적으로 양호하지만 청년층은 취약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급여·복지 향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애로가 큰 가운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전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워라밸을 위해 유연근무제, 자기발전 기회 등을 제공하자 청년 지원자가 늘어났다는 사례를 들려줬다.

월요대화는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더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시민을 만나, 더 깊은 대화를 통해 그동안 행정에서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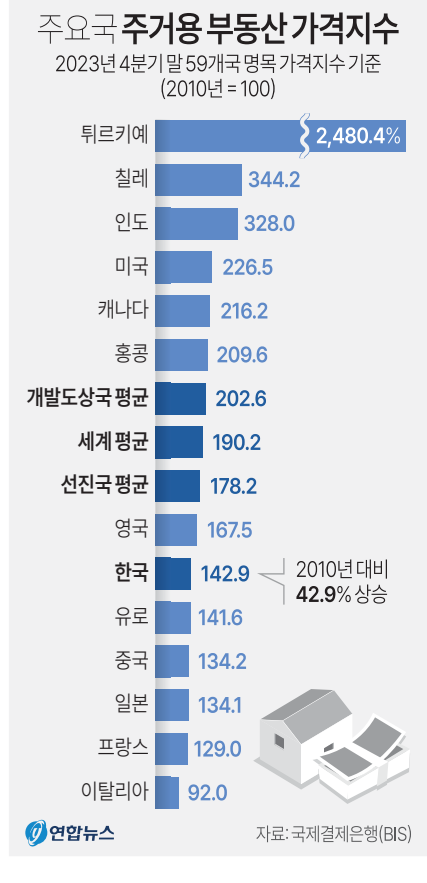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집값 가파르는데...국내 거주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 59개국 중 48위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42.9(2010년=100)로 집계됐다.

이는 BIS 자료에 포함된 59개국 중 4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계 평균인 190.2는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178.2)이나 개발도상국 평균(202.6)보다 한참 낮았다. 한국의 명목 가격지수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분기 121.7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 3분기 말 154.1까지 치솟았다.

세계 평균(123.0)을 비롯해 선진국 평균(132.3)과 개도국 평균(115.8)보다 낮았다. 이 실질 가격지수는 지난 2017년 1분기 말 103.7로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1년 4분기 말 126.1까지 올랐다가 차츰 하락세를 나타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J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